

지역 소식통

정읍,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만들기 '주력'

정읍시가 탄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 일환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만들기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쏟고 있다.

교통사고 취약 지역에 대한 개선 및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신월삼거리 회전교차로를 포함 10개소에 약 15억원을 투입, 추진 중이다. 사업 대상지는 모두 10개소로, △덕천면 신월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갑곡면 회전교차로 보강 △북면 정읍한우사거리 △신태인읍고산마을 입구 선형개량 △태인면 공사교차로 도로구조 개선 △고부면 주산지점 선형개량 △덕천면 새터지점 회전교차로 도로구조 개선 △구룡동(시도12호선) 도로 확·포장 △정읍서초교 오거리 개선 공사 10개소이다. 특히 시는 특별교부세 4억원을 들여 최근 덕천면 신월삼거리 회전교차로를 준공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청년UP센터, 소셜다이닝 '청춘식탁' 개최

부안은 지난날 31일 부안청년UP센터에서 소셜다이닝 '청춘식탁'을 개최하였다.

소셜다이닝 '청춘식탁'은 혼자 살며 끼니를 거르기 쉽거나 건강간식 식사를 챙기기 힘든 청년들이 음식을 매개로 함께 모여 소통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밥상 모임이다. 2022년 처음 시작된 청춘식탁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는 8회차로 확대 운영한다.

'기획초보자를 위한 행사기획방법'이라는 주제로 4월에 시작하여 이번이 두 번째 회차이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금요일마다 총 8회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매 회차별 다양한 음식을 비롯하여 금융·경제 교육, 로컬 브랜드, 여행, 연애 특강을 주제로 한 미니 토크와 친목을 위한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안에 거주하거나, 부안에서 생활하는 18~45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 첫 추경 1조2089억 규모 확정

## 정읍시, 지역경제 활성화·시민 불편 해소 등 시민 삶의 질 개선 중점

정읍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1조2,089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 대비 975억원 늘어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는 1조359억원 대비 917억원(8.86%) 증가한 1조1,276억원, 특별회계는 본예산 755억원 대비 58억원(7.70%) 늘어난 813억원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주민

불편 해소를 통한 시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을 보면 △수성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 120억원 △문화관광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및 동화마을 테마공원 조성 38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우분연료화) 설치사업 36억원 △정읍체육특레이닝센터 건립공사 33억원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30억원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조성

25억원 등이다.

이학수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불편 해소, 현안 추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중점을 뒀다"며 "예산·심의 의결을 위해 노력해준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은 지난 3월 말부터 시작된 '금토끼 야시장'이 여름의 문턱에 접어들며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 부안군문화재단, '변산, 풍경이 된 플라스틱' 개최

### 작은미술관 운영·조성사업 선정

부안군문화재단(이하 재단)은 4일부터 부안역사문화관에서 2024 부안작은미술관, 부안을 아카이브하러의 '변산, 풍경이 된 플라스틱' 기획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곳곳에 미술문화가 도달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시각예술 향유를 목적으로 한다. 재단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올해까지 작은미술관 운영 및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역민의 시각예술 문화향유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변산, 풍경이 된 플라스틱'은 부안의 지역성과 장소성을 담은 2024 부안작은미술관 기획전시의 첫 번째 테마이다. 변산 해안의 다종다양한 해양



플라스틱을 채집, 분류하여 설치미술로 표현하고,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조명하는 전시이다. 김순임 작가는 각 지역 특유의 자연 오브제 및 공간과 엮어 다양한 방식으

로 표현하는 작가이다. 국내 및 해외 각지에서 20여 회의 개인전과 글로벌 노마드아트프로젝트, 규슈에문관 전시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및 기획전에도 참여하였다.

이번 전시는 변산 해안의 플라스틱 설치미술, 해양 플라스틱을 의인화한 배너 등으로 구성되어, 부안역사문화관 공간을 다각적으로 활용한 전시가 될 예정이다.

전시 오픈식은 6월 4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작품 소개와 더불어 김순임 작가와의 대화까지 함께 진행된다.

부안군문화재단은 "우리 지역을 잃어내는 다양한 시각을 통해, 부안을 새롭게 일궈내고 아카이브하는 전시를 준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변산, 풍경이 된 플라스틱' 관람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전시 기간은 7월 26일까지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 '금토끼 야시장' 대박났다

### 3개월 방문객 평균 2000여명, 다양한 연령층 '활력 UP'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고창읍에서 고창전통시장으로 향하는 골목길에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금토끼 야시장'이 대박을 냈다.

고창 금토끼 야시장의 3개월간 방문객은 일일 평균 2000여명에 달한다.

관매부스 매출액도 금·토요일 2일간(5시간/일) 운영에 따라 매대당 평균 57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실제 지난 3월말부터 시작된 야시장은 여름의 문턱에 접어들며 방문객이 대폭 늘어났다.

색색의 알전구가 켜진 야시장에선 화려피자와 장어덮밥, 치즈버거, 새싹보리떡볶이 등 길거리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고창군은 100% 지역 청년들과 군민들의 신청을 받아 먹거리 포차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름날 분위기를 띄우는 합창 공연과 트롯공연이 열리며 방문객 선선한 저녁공기 속에 야시장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고창 금토끼 야시장은 지역 체류형 야간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군은 한류스타 공유가 머물고 넷플릭스 등에 소개된 머문 음성한옥호텔을 비롯해 석정힐링카운티, 주변 펜션 등에 숙박하거나 벚꽃축제, 청보리밭 축제 등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저녁 식사 후 친구, 연인, 가족들과 야시장을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야시장을 통해 저녁 구도심에 다양한 연령층이 불비기 시작했다"며 "관광객이 지역에 좀더 오래 머무르고, 군민 또한 즐거운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없애고, 더 풍성한 먹거리, 볼거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 '국가예산 중앙부처 대응 전략회의' 개최

심덕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수가 2025년 고창군 주요 현안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중앙부처 고위공직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부서장들과 함께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심 군수는 청년주거정책과 하청혼 과장을 만나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총사업비 400억원)의 고창신활력산업단지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고창신활력산업단지 조성전자, 지적 등 다수의 기업이 입주할 확정해

향후 주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로자 인구 유입을 유인할 수 있는 복지 특화시설과 공공주택이 절실한 상태이다.

이후 심 군수는 행정안전부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을 만나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총사업비 40억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군은 사업 대상지로 고창읍 터미널 주변을 최적으로 판단하고 해당 공모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 지역은 주택, 상가 및 학교가 밀집돼있고, 특히 고창읍 터미널~고창고 일원은 인도폭이 협소하고, 도로변 공중선로로 인해 혼잡한 곳이다.

끝으로 심 군수는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임태호 수산자원정책과장 및 면담을 진행하며 총사업비 50억원 규모의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의 고창군 지원을 요청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각종 국가 공모 사업을 신청해 지역 숙원사업 해결과 군 예산을 절감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또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기재부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창군이 더 많은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정읍시장 "추진 상황 점검 등 공약사업 이행 최선"

### 이학수 시장, 영상 간부회의 개최

이학수 정읍시장은 3일 오전 영상 간부회의를 갖고 상반기 마무리 시점이라며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부진 사유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하반기에 추진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공약사업 이행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시민 수혜 정책이나 지역 내 공사 현장 등 각종 행정정보도 적극적으로 알려져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할 것도 강조했다.

또 사업추진과 관련, 연말에 가까워 속도에 쫓기는 일이 없도록 준비한 사업들을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내년 사업도 추진이나 예산 집행 계획 등을 미리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더불어 지난날 31일자로 1차 확정된 추경예산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신속하게 집행해서 시민 생활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